

세계시민교육 연계 지속가능발전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탐색*

김영순** · 윤현희*** (인하대학교)

국문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세계시민교육 연계 지속가능발전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탐색하여 교육 현장에서의 실제적인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자 하는데 있다. 연구 수행을 위해 환경, 사회·문화, 경제, 시민교육 등의 영역별로 구성된 9명의 전문가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세계시민교육과 지속가능발전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고, 매트릭스 분석법을 활용하여 코딩 및 해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전문가들은 세계시민교육 연계 지속가능발전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으로 수업 지원, 교사 역량 강화, 관련 기관 네트워크 구축의 3가지 과제를 제시하였다. 세계시민교육 연계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위한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관련 교과서나 보충교재, 수업모델 및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실제적인 운영 자료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 또한, 수업을 운영하는 교사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사 연수가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교육부, 교육청, 시민단체, 지방자치단체, 학교 등 교육 관련 기관들의 역할 분담과 네트워크 체제 구축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세계시민교육 연계 지속가능발전교육 활성화 지원을 위해 앞으로 요구되는 추후 과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제어] 세계시민교육, 지속가능발전교육, 연계, 지원 방안

I. 서론

지속가능발전(SD)에 대한 연구는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 1992)에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ESSD)’에 초점을 맞추어 환경적인 관점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경제적 관점과 사회·문화적 관점으로 지속가능발전교육(ESD)의 영역이 확대되었다(이동수 외, 2017). 2009 개정교육과정은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명시하여 이전에 범교과학습에 머물러 있던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정규 교과를 통해 학습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다(오세경 외, 2016).

* 이 논문은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세계시민교육과 연계한 지속가능발전교육 중장기 정책연구’(2015.12 ~ 2016.05)에서 수행된 연구 결과의 일부를 수정·보완하였음.

** 주저자, 인하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 kimysoon@inha.ac.kr

*** 교신저자, 인하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bomin0924@hanmail.net

지속가능발전교육은 사회, 환경,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교육이자, 인간의 발달과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지향하는 교육이다(김영순 외, 2016a). 지속가능발전교육은 DESD를 거치면서 “모든 개인이 인도적이고, 사회적으로 정의롭게, 경제적으로 성장 가능하며,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미래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가치, 능력, 지식, 기능 등을 습득할 기회를 제공”(이선경, 강상규, 2009: 42)하는 통합적인 교육 원리로 수용되기 시작하였다(허준, 윤창국, 2015).

글로벌 시대에 세계가 직면한 문제는 전지구적 차원에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 경제, 기술적 수단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수단적 방법과 함께 글로벌 공동체로서 사고하고 행동하는 방식의 변화가 수반될 때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세계시민교육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김영순 외, 2016a). 세계시민교육은 ‘비판적 사고, 의사소통, 문제해결, 갈등해결과 같은 전이 가능한 기능(transferable skills)’을 필요로 한다(UNESCO, 2014). 지구촌 시대에 세계시민이 갖추어야 할 요소로는 지구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는 지구적 세계관, 인권에 대한 존중, 다양성에 대한 존중, 평화와 관용의 자세 등이다(지은림, 선광식, 2007; 채보미, 2015). 세계시민교육이 추구하는 가치들이 지속가능발전교육에서 추구하는 핵심 가치와 유사하며 지구촌 시민으로서 인식과 태도의 변화를 공통 목표로 한다는 점은 지속가능발전교육이 세계시민교육과 연계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2015년 제2회 세계시민교육 유네스코 포럼(UNESCO Forum on Global Citizenship Education)에서는 변혁적 세계시민교육 모델 정립을 위한 세계 공동선(global common goods)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여기에는 실천 중심의 지속가능발전교육, 세계 평화, 글로벌 시대 공동구성원으로서 민주적으로 공존할 수 있는 전략 개발 등이 포함된다(Misiaszek, 2015). 이러한 논의는 세계시민교육에 있어서 지속가능발전교육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계시민교육 연계 지속가능발전교육 관련 연구는 김영순 외(2016a, 2016c)와 오세경 외(2016) 총 3건이 있다. 해당 연구들은 세계시민교육과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이론적인 연결고리를 찾아 실제적인 교육 현장 구현 방안을 탐색하였다. 김영순 외(2016c)의 연구에서는 세계시민교육과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연계 방식에 관해 세계시민교육 중심, 지속가능발전교육 중심, 상호보완성을 인정하는 독립된 교육, 융합적 접근의 네 가지 접근법을 제시하며 교육과정을 통한 연계 및 실천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오세경 외(2016)는 세계시민교육과 연계한 지속가능발전교육에 대한 초중등교사의 인식을 조사하여 두 교육의 목표나 주제, 내용 측면에서 상당부분 유사점이 있으므로 세계시민교육 연계 지속가능발전교육이 필요하다는 현장 교사들의 인식을 드러냈다. 아직까지 현장에서의 실천과 활성화를 위한 수업운영, 교사지원, 네트워크 형성과 관련된 구체적인 방안이 관한 논의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세계시민교육 연계 지속가능발전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II. 세계시민교육 연계 지속가능발전교육

1. 세계시민교육과 지속가능발전교육의 관계

지속가능발전교육은 지역사회와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다부문적이고 다층적인 문제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해결하고자 하는 교육이고, 세계시민교육은 지구적인 관점에서 인류의 미래를 조망하여 세계가 직면한 인류 공동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지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김영순 외, 2016b; 변연지, 2010).

글로벌 차원의 문제는 기술, 경제, 정치적 수단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며 전 지구적인 공동의 노력이 동반되어야 한다. 우리 사회나 세계의 문제를 지구와 인류라는 거시적 관점으로 접근하는 시도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고 세계시민을 기르는 출발점이다. 이러한 시도가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태도를 형성하는 교육으로 연계될 때, 삶 전반에 걸쳐 지속가능적 태도를 실천하는 소양을 가진 세계시민으로 양성할 수 있다.

즉, 지속가능발전교육과 세계시민교육은 인간의 사고 전환과 더불어 행동 방식의 변화를 기반으로 한 실천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김영순 외, 2016b; 채보미, 2015). 따라서 지속가능한 미래 사회를 살아갈 수 있는 세계시민으로서의 역량을 어떻게 기를 것인지에 대한 반성과 고민이 지속되어야 한다(변중헌, 2001).

영국에서는 2010년 UN의 ‘지속가능발전교육 10년’ 선포 이후 ‘ESDGC’(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nd Global Citizenship)라는 용어를 활용하며 지속가능발전교육과 세계시민교육의 중요성과 관련성을 강조하였다(성열관, 2010). 세계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잘 실시하고 있는 단체로 평가받는 영국의 NGO 옥스팜(Oxfam)에서는 세계시민교육의 목표를 학교라는 공간 안에서 다양한 세계 이슈들에 대해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있다고 밝히며 세계시민교육에서 다루어야 할 교육내용을 사회정의와 평등, 다양성, 세계화와 독립성, 지속가능한 개발, 평화와 갈등의 5개 영역으로 제시하였다(변연지, 2010; 성열관, 2010). 이를 통해 세계시민교육의 영역이 지속가능한 사회와 지구 유지를 위해 필수적으로 학습해야 할 내용을 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서 기술한바와 같이, 세계시민교육과 지속가능발전교육은 지향점과 내용 측면에서 상당부분 유사성이 발견된다. 현대 사회는 국가 간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상호의존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한 시민 육성이 중요한 교육 목표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세계시민교육과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이론적인 연결고리를 찾아 이를 교육 실천으로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관한 탐색이 필요하다(김영순 외, 2016a).

2. 세계시민교육과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연계 방식

세계시민교육과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연계 방식에 관해서는 “세계시민교육과 연계한 지속가능

발전교육 중장기 정책연구”(김영순 외, 2016a, 한국과학창의재단)가 유일하다. 해당 연구는 세계 시민교육과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연계하는 이론적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세계시민교육 연계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중장기 정책을 제안하였다.

교육 현장에서 세계시민교육과 연계한 지속가능발전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교육과정에 편입시켜 수업을 통해 실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우리나라는 국가차원에서 교육과정을 개발, 보급하고 교사는 주어진 교육과정에 따라 운영하므로 교육의 큰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박민정, 2012). 따라서 세계시민교육과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연계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해당 내용을 교육과정에 편입시키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세계시민교육과 지속가능발전교육을 교육과정에 녹이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자체와 편입 방법, 편입 내용 및 범위 등 충분한 사전 검토를 거쳐야 한다. 김영순 외(2016a, 2016c)의 연구를 통해 밝혀진 세계시민교육과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연계 교육과정 운영 모형은 <표 1>과 같다.

〈표 1〉 세계시민교육과 지속가능발전교육의 교육과정 운영 모형

세품지 모형	지품세 모형	융합형 모형
ESD > GCED	ESD < GCED	ESD ∞ GCED

첫번째 모형은 ‘세품지’로 세계시민교육을 품은 지속가능발전교육의 방향이며, 많은 전문가들이 우리 교육계가 추구해야 할 방향이라는데 동의를 표하였다. 기존의 지속가능발전교육이 환경교육에 기반을 두고 출발하였지만 지금은 경제와 사회·문화교육 영역으로까지 확대되어 범교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런 현황에 비추어 지속가능발전교육은 그동안 사회과교육에서 수행해 온 세계시민교육과 함께 범교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초등교육은 담임교사가 전교과를 가르치기 때문에 교과나 영역, 교육내용 등의 통합을 통해 교육과정 재구성이 용이한 환경이다. 그래서 ‘세품지’가 교과나 영역, 내용의 구애를 받지 않고 주제에 따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활성화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교과 위주의 중등교육에서는 교과나 영역 간의 통합이나 재구성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환경이므로 ‘세품지’를 운영하는데 어려움을 따른다. ‘세품지’적용을 교과나 교육내용 간의 통합 측면에서 고찰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교과 내 역량중심 교육과정을 운영을 통해 역량강화 교수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발전적 재구성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두 번째로 제시한 ‘지품세’ 모형은 지속가능발전교육을 품은 세계시민교육의 방향을 의미한다. 세계시민교육을 범교과적인 교육목표로 두어 행동과 실천 중심, 즉 태도와 가치 영역으로 설정하고,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주제 중심으로 축소시켜 지식, 이해적 측면으로 설정하여 운영한다. 즉, 세계시민이라는 교육 목표 아래 필요한 교육내용으로서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영역과 요소가 존재하는 형태이다.

마지막 융합형 모형은 교과별, 주제별, 수업의 형태별로 교수자가 적절하게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요소와 세계시민교육 요소를 융합하여 활용하는 것에 중점을 둔 형태이다. 교사는 교육과정

재구성 방향에 따라 수업을 운영하게 되며, 학습자들은 수업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획득하므로 교육과정 재구성은 교육의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 모형은 교사의 자율성과 재량을 인정하기 때문에 수업 운영에 있어서 탄력적인 장점은 있으나 교사의 교육과정 재구성 능력에 따라 교육 내용과 수준이 좌우된다는 한계가 있다.

앞서 제시한 세 가지 모형 모두 특성과 한계가 있으나, 현재 사회와 세계의 흐름에 맞는 모형은 ‘세품지’로 제시한다. 그 이유는 첫째, 지속가능발전교육과 세계시민교육이 포함되는 교과적 측면이다. 지속가능발전교육이 사회, 과학 등 다양한 교과에 적용될 수 있는 반면, 세계시민교육이 주로 사회교과를 통해 실행되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더욱 다양한 주제와 내용을 다룰 수 있는 지속가능발전교육의 범위를 더 넓은 것으로 해석하고 적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둘째로 두 교육의 목표와 지향점의 유사성에서 더 나아가 각 교육에서 추구하는 목표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다. 지속가능발전을 더 큰 목표로 두느냐, 세계시민 양성을 더 크게 볼 것인가의 문제인데 ‘세품지’ 모형에서는 세계시민의 목표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보다 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한다.

이제는 세계시민교육과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연계 방식에 대한 탐색에서 더 나아가 세계시민교육과 지속가능발전교육이 연계된 교육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두 교육 간의 연계 방식은 교육과정 차원에서 구성될 거시적 차원의 탐색이라 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어떻게 적용하고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실제적 활성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동반될 때, 교육 현장에서 세계시민교육과 지속가능발전 연계 교육이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

Ⅲ. 연구설계

1. 연구개요

본 연구에서는 지속가능발전교육과 세계시민교육의 연계방법에 관한 기존 논의를 바탕으로, 교육 현장에서 세계시민교육 연계 지속가능발전교육의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지속가능발전교육과 세계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탐색하기 위해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FGI(Focus Group Interview)를 실시하였다. FGI는 초점이 맞추어진 주제에 관한 그룹 토의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으로, 특히 탐색적 연구에 적합하다(김영순 외, 2016a). 또한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때문에 참가자들의 전문적인 견해들을 수집하는 데 용이하다(김영순, 2016c). 이 연구는 세계시민교육 연계 지속가능발전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효과적인 교육 현장 지원방안을 논의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각 분야에서 전문가 자질을 갖춘 연구자들을 섭외하여 연구문제 관련 질문에 대한 심층적인 답변을 듣고 이를 기술하고 해석하며 지원방안을 도출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2. 연구 참여자

FGI에 참가한 전문가 그룹은 학교장, 장학사, 교수, 시민단체 활동가 등으로 구성되었다. 지속가능발전교육이 사회, 경제, 환경 등 모든 영역을 아우르는 특성을 감안하여, 사회·문화, 경제, 시민교육 등 영역별로 총 9명의 심층면담을 진행하였다. 구체적인 면담 대상자 특성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세계시민교육과 지속가능발전교육의 교육과정 운영 모형

구분	성별	소속 및 직위	전공 및 관심분야
전문가1	남	경기도 00장학사	학교 교감, 환경교육, 지리학 박사
전문가2	남	경기도 00장학사	교육청 시민교육담당, 일반사회 전공
전문가3	여	인천 00장학사	중등, 영어교육전공, 글로벌 시민교육
전문가4	남	00고등학교 교장	일반사회, 사회학 전공
전문가5	남	00대학교 교수	일반사회, 세계시민교육
전문가6	여	00대학교 교수	과학교육, 지속가능발전교육
전문가7	남	00대학교 교수	일반사회
전문가8	여	00교육원 실장	세계시민교육
전문가9	남	00시민단체 사무국장	시민단체전문가, 환경교육, ESD

3. 자료 수집 및 분석

FGI는 2016년 4월 15일부터 4월 20일까지 진행하였으며 질문 내용은 세계시민교육과 지속가능발전교육 간의 관계와 연계 방식, 연계 이후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인터뷰 소요시간은 150분 정도로 진행하였으며, 인터뷰 전에 메일로 먼저 사전 질문지를 보내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수집된 자료는 녹음기를 사용하여 녹취하였으며, 녹취된 파일은 모든 내용을 전사하였다. 전사된 자료는 개념적 틀을 고안하기 위해 자료를 여러 번 읽고, 중요한 발췌문에 대하여 질적 자료 분석 방법인 매트릭스 분석법을 활용하여 연구참여자별, 주제별로 시각화된 데이터 자료로 정리하고 의미를 해석하였다.

IV. 세계시민교육 연계 지속가능발전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1. 수업지원

1) 교과서 개발

지금까지 세계시민교육과 지속가능발전교육은 범교과에서 다루는 영역 정도에 머물렀다. 2009 개정교육과정부터 지속가능발전교육을 교과에 포함시켰지만 이를 구현하는 교과서 개발이 미흡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전문가 3은 교과서 개발 논의가 부족한 현실을 부각시키면서 교과서 개발의 필요성을 피력하였다. 특히 몇몇 교육청 및 연구회 등에서의 교과서 개발 현황을 소개하면서 교과서 개발의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세계시민교육 연구회 중심으로 교과서가 개발되고 있구요. 경기도, 서울, 인천이 세계시민교육 교과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세계시민핵심역량, ESD핵심역량 중심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교과서가 많이 나와 있지 않아서 없어요. 교과서 개발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전문가3)

실제로 2017년에 서울, 경기, 인천, 강원 4개 교육청이 공동으로 제작한 세계시민교육 인정교과서¹⁾가 보급되었다. 그러나 한정된 학교를 대상으로 배부되어 전체 학생이 활용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전문가 5는 세계시민교육 정식 교과서 개발 과정에서의 걸림돌을 언급하며 교과서 구성에 있어서의 참신성과 구체성, 개발 과정에서의 지속적인 보완절차가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교과서에 처음 등장할 때는 당연히 개념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긴 할 거예요. 그런데 매우 재미없는 설명이겠죠. 검정을 통과하려면 점점 맛이 없어져요. 점점 맛있게 지더라고요. 처음에 좀 참신하게 뭘 해도요 다 잘리고요. 고치라고하기 때문에 (...) 그렇게 해서 처음에 등장할 때는 그 어떤 개념이 이렇게 좀 들어가고, 또 지도서에서 좀 새롭게 가는 저기는 보강이 되고 그렇게 가야겠죠.(전문가5)

또한 전문가7은 교과서의 서술 방식을 제삼자적, 타자적 방식을 지향해야 하며,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흥미롭게 구성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보이며 교과서 개발 방향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사회적 관점 취득의 첫 번째 단계의 일단,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게 타자의 마음(사고의 감정 속으로 들어가기). 이게 첫 번째 단계. 그럼 그 사람의 입장, 관점을 취득해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겠죠. 그 후속활동이 타자의 관점이 아니라 입장 또는 시각에서 또는 그 사람의 눈으로 이 세상이나 인간관계나 사물을 바라보기. 이게 핵심인거예요.(전문가7)

현재 개발된 세계시민교육 인정 교과서는 인권과 평등, 문화다양성, 지구환경 등 세계시민교육 역량을 배울 수 있는 내용 중심의 구성이다. 전문가 7의 의견은 세계시민교육의 내용뿐만 아니라 세계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인식과 태도 등의 전환을 꾀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였다는데서 의미가 있다.

1) [지구촌과 함께하는 세계시민], 박재준 외 공저, (출처: 뉴시스1 2017.3.16. 서울교육청, 세계시민의식 배우는 인정교과서 보급 <http://news1.kr/articles/?2937969>)

2) 보충교재 개발

교과서는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제작되기 때문에 교육과정을 세계시민교육을 연계한 지속가능발전교육의 관점을 녹여 넣어 개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관점을 반영한 교과서가 개발되기까지는 교육과정 개정과 시차가 존재한다. 이러한 이유로 전문가5는 현장 파급력을 높이기 위해 교과서를 보완할 수 있는 보충교재를 개발 및 보급하여 현장의 교사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하였다.

지금 교과서들은 세계시민교육을 품은 지속가능발전을 포함하지 않고 있어요. 왜냐면 지금 교육과정 에 안 돼 있으니까 (...) 교재에 있는 자료집 같은 거나, 선생님들한테 제일 좋은 거는 연수하면서 그냥 강의만 할 게 아니라 자료집을 주면서 요걸 가지고 이렇게 해보시라고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 사실상 연수를 안 받아도 교재가 있으면 어떻게 해 볼 저기라도 있는데, 이게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봤고 (전문가5)

세계시민, 지속가능발전교육 이게 국정교과서가 될 거는 아니니까. 하나의 교과가 아니기 때문에 참 고할 수 있는 교육자료, 교재 뭐 이렇게는 될 수 있을 텐데, (전문가8)

지속가능발전교육이나 세계시민교육은 특정 교과이기보다는 전 교과에 학습내용 속에 개념, 관점, 목표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교과서를 개발하기가 쉽지 않으며, 교과서가 발간될 경우, 교사와 학생의 부담도 증가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 기인하여 전문가 5와 8은 보완책으로 교육자료 개발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3) 수업모델 및 프로그램 개발

몇몇 전문가는 세계시민교육과 연계한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위한 방안으로서 수업모델 및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 언급하였다. 교육청 장학사인 전문가3은 교사가 주축이 되는 학습공동체 및 연구회를 중심으로 수업모델을 개발하게 하고, 우수한 프로그램을 공유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하였다.

제일 중요한건 수업모델, 프로그램 개발을 해야겠죠. 수업모델은 교육연구회, 세계시민교육연구회, ESD연구회, 각 교과별 연구회가 있습니다. 영어, 수학, 과학교과연구회 이런 연구회, 전문적 학습공동체에 많이 지원해주셔서 수업모델을 개발하고 프로그램을 공개하는거죠. (...) 협업이 중요하죠. 그리고 연구회간에, 서로 공유도하고. (전문가3)

또한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과정이나 교과연계를 고려하고, 연속된 차시로서 모듈로 제공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프로그램 개발시 주안점은 교육과정과 동떨어지면 안되겠죠.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구요. 또 자유학기제, 동아리 활동, 이런 것과 연계하고, 확산시키는 방법은 모듈개발하고 전문가

양성해서 컨설팅 지원해 주는거죠, 학교에 지원해주고, 컨설팅 지원해주고, 선도교사를 각 학교마다 한 두 명씩 점차적으로 매년 늘려서 이사람들이 주도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전문가3)

세계시민교육과 연계한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위한 그게 하나의 프로그램이 된다면 그걸 위한 교육과정 이 또 있어야지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교육과정을 말하는 거죠. 대규모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컨대 15차시가 될 수도 있고, 30차시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모듈처럼 그 패키지로 묶어서.(전문가5)

전문가 3과 5가 제시한 의견은 교사 주도의 실제적인 수업지원 방안이 마련된다는데 의의가 있다. 단기간에 제작이 불가능한 교과서나 보충교재의 활용의 한계를 넘어서서 교사 주도의 수업 모델 개발이나 지원 활동을 통해 현장중심적인 활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2. 교사 역량 강화

1) 교사 연수의 필요성

몇몇 전문가는 학교 현장에서 교육을 수행하는 일선 교사들에게 가장 필요한 사항이 교사연수 라고 주장하였다. 아무리 좋은 지원책이 있어도 그것을 실행하는 교사의 역량이 뒷받침 되지 못 하면 최고의 효과를 낼 수 없다. 전문가들은 교사역량강화 측면에서 직무 연수의 필요성을 강하게 피력하였다.

교사가 제일 먼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교사연수 쪽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교사들이 정말 시키고 나면 달라지더라고요. 어디선가 무언가 실천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뿌듯하고 정말 '돈이 아깝지 않다' 생각합니다. 예산을 엄청 쓰고 있습니다.(전문가3)

교사들의 역량강화 문제, 또는 어떤 교육 자료의 문제. 교사 역량강화라든가 교육자료 개발 이라든가 이런 걸 하기 위한 또 이런 관련 경험들이 확산될 수 있는 그런 면에서 제도적인 뒷받침. 이거는 이제 그 뭐 정부차원에서든 교육부, 또 뭐 교육청이 같이 협력해서 가야될 것 같아요. (전문가8)

아울러 전문가8은 교사연수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을 하고 있는데, 시도교육청별로 교원 연수과정에 세계시민교육 연계 지속가능발전교육 연수과정을 반드시 포함하여 운영해야 하며, 이에 따른 연수원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을 하였다.

시도교육청별로 있는 교육연수원의 연수과정 중에 특히 직무연수, 자격연수 같은 거 학교 관리자 대상 또 자격연수 과정의, 이거는 어떤 특정과목 교과 담당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교사들의 인식도 재고가 필요하고, 그중에도 또 특히 뭐 선도교사라든가 뭐 연구학교, 시범학교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더 역량강화가 필요하니까 그걸 좀 더 체계적인 그런 교원역량강화 쪽이 강화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전문가8)

전문가들은 세계시민교육과 연계한 지속가능발전교육 활성화를 위해 관리자연수, 자격연수, 직무연수 등에서 필수적으로 또는 원할 때는 언제든지 수강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교사연수를 통한 교수 역량강화는 교사들의 인식과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다.

2) 교사 연수의 구체적인 방법

전문가8은 교사 연수 방법 측면에서 교사들 간의 사례와 경험의 공유를 통한 동료연수의 방법을 제안하였다. 교사 주도적인 연구 활동은 모범적인 사례로서 각종 대회나 인센티브와 연결되면 좋겠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하였다.

다른 선생님과 함께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를 나누게 되고 이런 경우에 나는 어 이렇게 했다 그러면서 이런 어려움이 있었고, 또는 이런 부분은 어떻게 극복을 했다 이렇게 그 경험을 같이 공유하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효과적인 동료연수의 방법 중에 하나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 (...) 선생님들한테 시도나 전국단위 연구대회 이렇게 해가지고 선생님들도 독려하고 연구점수라든가 이렇게도 인센티브로도 연결이 되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전문가8)

전문가3은 교사연수 기획 경험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교사연수 방법을 피력하였다. 특히 의사표현, 체험, 토론 및 발표 등의 구체적인 교육 방법에 대해 설명하였다.

제가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교원 연수입니다. 영국문화원의 연수는 관리자, 교장, 교감, 교사연수인데 이런 세계시민교육이나 국제화교육, (...) 경인교대에 연수위탁을 했는데 세계시민교육 전문가 과정이라고 있어요. 모둠을 개발하고 멘토교사가 수업, 수업방법을 짜는 것까지 다 관여하고, 그리고 나서 수업을 공개하고, 그 후 수업을 했던, 개발했던 것들을 자료화, 데이터화 하는거죠. (...)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에는 외국 선생님들과 연합해서 하는 펠로우십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또 인천교육연수원에도 세계시민교육 연수를 진행하고 있고, 또 학생캠프, 중학생대상으로 영어로 세계시민교육을 체험하고 토론하는 캠프, 1박2일 캠프도 있구요. 이러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있는 학생들을 데려다가 우리나라 아이들과 함께 하는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전문가3)

전문가들마다 교사 연수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듯 세계시민교육이나 지속가능발전교육, 두 교육 간의 연계 등에 대한 교육이나 연수는 정형화된 방법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단계이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세계시민교육과 지속가능발전교육 관련 전문가 양성을 위한 필요성과 방향성을 제시하였다는 공통점이 있다.

3) 교사 연수의 효과성

전문가8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역량 강화 연수가 학교 현장에서 적용되는데 있어 미흡한 점

을 지적하며, 교사 연수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교사 연수를 지원해 줄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얼마 전까지도 교사직무연수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됐는데, 이게 비록 환경교육 중심의 지속가능발전교육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이 이제 상당히 이제 많이 줄었잖아요. 근데 그거는 좀 더 이렇게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한 거는 필연적일 것 같고요, 그 세계시민교육 이름으로 뭐 지금 역량강화 이런 거 있지만 이거 굉장히 학교 현장에 착근하기엔 굉장히 좀 한정적이다.(전문가8)

전문가3은 교사 연수를 통한 수업의 변화 사례를 언급하며, 연수를 통한 역량강화는 교수자의 실천과 수업의 긍정적 변화를 유도함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연수의 효과성은 교육현장의 발전과 변화를 이끄는 기반이 될 것이다.

교육연수를 지금 국제특구업무를 4년차 하고 있는데, 직접 가서 선생님들 수업 공개할 때 가서 보면, 연수해서 했던 것을 다 적용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Flipped Learning을 연수를 시켰더니 실제로 그걸 적용하고 있더라고요. 아, 연수가 받고 끝난다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 중에 누군가는 실천하고 있다, 한명이라도 실천하고 있으면 이것은 돈이 아깝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전문가3)

전문가6은 연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학교관리자 연수임을 거론했다. 학교장들이 세계시민교육 연계 지속가능발전교육에 관한 인식의 변화, 마인드의 혁신을 가진다면 교육 현장에 가장 큰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인식전환인 것 같아요. 관리자인 교장들 연수 (...) 그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관리자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 교장 마인드를 바꾸어야지요. 교장선생님들은 교육청에서의 어떤 정책에 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교육청 자체에서 많이 움직여 줘야 될 것 같긴 해요. (전문가6)

전문가들은 교사 연수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교육 현장의 수업을 변화시킬 수 있는 실제적 방안 중심으로, 관리자의 인식 전환에서부터 출발할 것을 강조하였다. 이는 교사 연수를 통한 역량 강화가 수업과 교육현장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기반으로 작용한다는 기본 전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관련 기관 네트워크 구축

1) 교육부의 역할: 전체 방향 제시 및 예산 지원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세계시민교육 연계 지속가능발전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교육부가

큰 틀에서 방향 제시 및 예산 지원과 교육과정 속에 포함 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교육부에서 하는 일은 프레임이나 프로그램 방향을 제시해주어야 하구요. 국가수준에 지침이나 방향을 제시해주면 훨씬 저희가 수월하죠. 그리고 이걸 이행하기 위한 어떤 지침을 제공하고, 예산도 지원해주어야겠습니다. (전문가3)

정부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수단은 교육과정이지요. 이걸 두말할 것도 없이 가장 강력한 것이니까요. 교육계에서는 교육과정이 헌법이지 않아요. (...) 교육부나 교육청이 방향과 목표와 콘텐츠를 주도하고 거기엔 간섭하지 말고 이제 지원해주는 쪽으로 (전문가5)

정부차원에서 우리가 학교 교육 안에서 본다면 결국에 어떤 교육과정 반영문제, 또 교사 역량강화 문제, 그리고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 확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인 지원 같은 것,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는데, 어떤 그 구체적인 제안보다도 정부차원에서는 제도적인 지원책을 계속 만들어 내는 것 밖에는 없습니다. (전문가8)

교육부에서는 큰 틀에서 교육청에 교육과정을 제시해주는 역할뿐만 아니라,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고, 예산 지원은 하지만 간섭을 하지 않는 그런 역할을 전문가들은 요구하였다. 즉, 교육부에서의 거시적인 차원의 계획 수립과 환경 조성이 바탕이 될 때 교육 현장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2) 교육청의 역할

전문가들은 교육청의 역할에서 교원연수, 교사 동아리 지원, 교직원의 인식 제고 등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시도 교육청은 교육부의 정책을 실행하는 기관으로서 지역 상황과 교육 현장의 상황을 고려한 지원책과 방법적 측면의 지원을 수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실제로 교육부에서 연수를 하는 건 아니니까 교육청 같은데서 하는데, (...) 특히 초반에 모를 때 연수 강사를 잘 배치하셔서 호응 좋을만한 분들 배치하셔서 그렇게 하시면 확산이 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 (전문가5)

교육청은 교육 정책을 실행하는 1차 기관으로서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역할이 특히 중요하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세계시민교육과 지속가능발전교육 연계 활성화를 위해서는 교육 실행의 주체가 되는 교사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효율적인 연수를 마련하여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교육청이 교사동아리를 지원함으로써 시민교육연계 지속가능발전교육을 확산시킬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교육청에서 하는 일은 첫 번째, 교사동아리를 통해서 제일 먼저 학습공동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교사동아리에 세계시민부분을 이제 포함시키고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는 거 하나하고... 교사동아리... 교사 전문성 동아리 좀 필요하네요. 그런 분들이 모여서 한 학교에 가 있으면 그 학교는 부흥하는데, 그런

분들이 뿔뿔이 흩어져 있잖아요. 그것이 전도사 역할을 해요. 다른 학교에 교화시킬 수 있는 단초가 되잖아요.(전문가1)

연구회의 지원을 교육청에서 담당하고 있으니 교육청에서 연수도 시키면서, 또 하나는 공식적인 어떤 현장 확산을 위한 제도적 지원책 중에 하나가 연구회 활동 지원입니다. 그런 부분이 같이 가면, 세계시민교육이 먼저 나오든 지속가능발전교육이 먼저 나오든 충분히 효과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전문가8)

연구회나 전문적 학습공동체에 속하는 교사들은 수업모델을 개발하고 프로그램을 공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러한 프로그램들을 공개하고 어떻게 운영했는지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교사 연구회를 지원하는 것은 교육을 확산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정책을 실행하는 담당자들의 인식 제고 및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인식전환인 것 같아요. 인식전환이 먼저 되어야하는데, 교장선생님들은 교육청에서의 어떤 정책에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교육청 자체에서 많이 움직여 줘야 될 것 같긴 해요. (전문가6)

교육청 직원들의 인식제고도 필요합니다. 교육 전문직들 교육청에 들어오셨다가 교장, 교감으로 또 나가시잖아요. 사실 교육청에서 이런 정책지원 연수 이런 걸 한다 하더라도 자기가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필요성에 공감을 해야지 더 활발하게 되는 거잖아요? (전문가8)

교육부나 교육청 차원에서 학교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는 것은 관리자들의 인식 전환과 연결이 된다. 이러한 인식 개선과 전환은 학교 현장에 있는 구성원 뿐 아니라 시도 차원의 정책을 실행하고 교육 계획을 수립하는 교육청 전문직이나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3) 시민단체의 역할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시민단체의 자료와 프로그램 및 경험들을 학교와 사회가 공유함으로써 세계시민교육 연계 지속가능발전교육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의견을 공유하였다.

시민단체들은 여러 멤버십과 배경, 구조를 통해 ESD지원에 있어 다양한 범위의 전략과 활동들은 하고, 시민단체들은 캠페인이나 민간부문과의 협력을 추진하여, 커리큘럼을 지원, 자료제공, 학교연수, 교사 연수도 많이 하고 있어요.(전문가3)

민주시민 교육할 때 지역사회에 뜻있는 시민단체를 모아서 지역사회의 힘 있는 단체, 연합을 만들어요. 그래서 25개 시도교육청이 있는데, 그 시도교육청 안에 지역사회 시민단체 연합이 있어요. 그러면 같이 모여서 그 지역교육청에서 한 번 검증을 하죠. 그래서 그 시민단체가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을 학교에 가서 수업하는 그런 작업이 지금 되어있어요. (전문가2)

시민단체는 학교에서 하지 못하는 다양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실제로 이 단체들은 ESD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시민단체간의 네트워크를 통해 캠페인이나 민간부문과의 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커리큘럼 지원, 자료제공, 각종 연수 활동 등도 펼치며 일선 학교나 시민들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들은 국가적 차원을 확대되어 정부기관 및 시민들과 연계한 교육으로까지 확대할 수 있다.

시민단체 분들이 가지고 있는 풍부한 경험과 현장의 사례들이 밖으로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학회를 한다든지, 전문가 회의를 한다든지 그럴 때, 말씀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소통이 많이 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시민단체에 참여를 경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주는데 시민단체가 문을 열고, 어떤 연구기관에서는 그것을 존중하고, 이렇게 배려하면서 접촉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전문가5)

시민단체하고 이런 어떤 관, 정부단체에서 하는 그런 활동하고 연계가 되거나 서로 협동적으로 하면 좋은데, 조금 아쉬움은 있어요. 그리고 늘 하다시피 학교 환경 교육내지 학교에서 하는 지속가능발전교육하고 사회 쪽에서, 사회 환경 교육 내지는 사회 쪽에서 하는 지속가능발전교육하고 연계가 돼야 하는데, 그게 조금 잘 안되고 있고, 같은 맥락이에요. (전문가6)

세계시민교육과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연계는 두 교육의 특성과 가치와 태도를 함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시민단체들과 연계를 통해 교육의 범위와 대상을 학교와 학생만으로 한정짓지 않고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교육 프로그램으로 실시될 때, 세계시민교육 연계 지속가능발전 교육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4)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 기관들과의 연계를 통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지역사회 차원에서 세계시민 연계 지속가능발전교육이 실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역할은 학습기 학습자에 한정된 학습이 아니라 평생교육과 같은 개념으로 모든 시민들에게 세계시민교육 연계 지속가능발전교육에 관한 지식, 기능, 가치, 태도를 길러줄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양한 성인교육을 위한 다양한 학습센터라든지, 평생학습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데, (인천) 연수구에 열린외국어 센터, 계양국제어학관,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평생학습관, 학생수련원, 야외학습센터 이런 프로그램들을 지자체에서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3)

지역사회에서는 형식교육이외에 어떤 정책이 포함되어서 경제발전, 사회적, 환경적 책임을 위한 필요한 지식, 기술, 가치습득을 가능하게 하도록 하는 지원이 필요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런 것들을 같이 지원해주어야 하겠습니다. (전문가3)

위의 의견과 같이 기관 간 연계 체계를 구축하면, 지역사회에서 개별 기관들이 제공하는 프로그램들의 중복을 피하고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보다 많은 학습자들에게 양질의 프

로그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 기관과 학교 현장의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도록 협조체계를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가야 한다.

도의회나 자치단체가 예산을 그렇게 좀 밀어주고 어떤 학회 또는 연수를 한다거나 그럴 때 좀 지원을 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가면 좋을 것 같고, (전문가5)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이제 가장 그 밑받침이 되는 또 그런 어떤 제도적인 면, 정책적인 면에서 그 담당을 해야 되고, 예산지원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 뭐 중요성은 뭐 두말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전문가8)

지방자치단체는 또한 예산상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적인 지원과 더불어 제도적인 뒷받침을 지원해주는 역할을 해 주어야 한다는데 전문가들은 공감하고 있었다.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사회 각종 기관, 교육청 간의 네트워크 구축과 더불어 상시적인 협의 체계를 구축하여 예산 운영에 관해 실제적인 연계·협력이 필요하다. 협의체 구성 및 운영은 관련 유사·중복사업을 방지하고 협력적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용이하다.

5) 학교의 역할

학교는 세계시민교육 연계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실제적 교육이 일어나는 현장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전문가들은 학교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공통된 의견을 보였다.

실제 사례를 보여주지만 하면 저는 얼마든지 학교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항상 실제로 한 사례를 보면 가르쳐주지 않아도 선생님들이 내용영역에서 아 어느 정도를 하면 되겠구나. 이게 가능하다는거죠. 그런 사례들에 대한 제시가 많이 되면...(전문가4)

제가 생각할 때는 예전 창의성 모델학교의 그런 시스템으로 연결되어서 하면 참 좋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몇몇 학교가, 잘할 수 있는 학교를 모델학교로 선정하고, 그 학교를 통해서, 그 학교에서 잘할 수 있는 선생님들로 컨설팅으로 양성을 해서 강의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점차 확산하면서, (전문가4)

그러나 우리나라 교사들이 모든 자료나 프로그램을 공유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며, 전문가 양성과정이나 학교 컨설팅을 지원, 선도교사 지정 등을 통해 확산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교직원, 특히 학교 관리자의 마인드 제고와 현장의 최일선에서 학습을 실천하고 있는 교사들의 인식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학교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죠? 제가 그래서 우리 관리자들, 교장, 교감, 교무부장들 연수를 했어요. 교육과정을 짤 때, 연간 교육과정을 12월~2월까지 짜거든요. 3월에 바로 투입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교육과정을 짜면, 교감, 교무부장중심으로 연수를 했습니다.(전문가3)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마인드제고, 학교장이나 교원의 마인드제고가 중요하고요, 특히 교사가 제일 중요한 이유는 다 아시죠.(전문가3)

학교는 제 생각에는 학교장의 생각이 바뀌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전문가4)

어떤 특정과목 교과 담당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교직원들의 인식도 제고가 필요하고, 그중에도 또 특히 뭐 선도교사라든가 뭐 연구학교, 시범학교 같은 경우에는 더욱 더 역량강화가 필요하니까 그걸 좀 더 체계적인 그런 교원역량강화 쪽이 강화 되어야 될 것 같고요.(전문가8)

지속가능발전교육과 세계시민교육을 연계할 경우 현장에서 가장 중요시 되는 것은 학교장과 교사의 인식이다. 학교장의 리더십은 추구해야 할 목표와 그 목표의 달성방법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학교의 교육 지도자로서 교사의 사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학교장의 인식의 방향에 따라 학교교육의 질 혹은 효과가 달라질 것이다.

V. 결론

본 연구는 세계시민교육 연계 지속가능발전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에 대해 탐색하고자 관련 분야 전문가 9인을 대상으로 FGI를 실시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교과서 및 교재 개발, 모듈 및 프로그램 개발, 관계자 연수, 각 기관의 역할 영역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관련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과서 및 교재개발 영역에서 전문가들은 교과서 개발의 필요성과 구체성 및 교과서를 보완할 교재개발과 보급이 시급하다고 역설하였다. 특히 세계시민교육과 지속가능발전교육이 연계될 경우, 교사연수가 매우 중요한데 연수에 사용될 교재나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보충교재 등이 시급히 개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둘째, 모듈 및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교사 중심의 전문적학습공동체 및 연구회를 중심으로 수업모형을 개발하게 하고, 우수한 프로그램을 공유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관계자 연수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교육을 수행하는 일선 교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교사연수이며 특히, 교사역량강화 측면에서 직무연수나 자격연수에서 필수과정으로 배정되어야 할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또한 동료 교사를 활용한 현장 중심의 실제적 연수를 수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며 세계시민교육 연계 지속가능발전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교육현장과 교사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넷째, 각 기관의 역할 영역에서는 교육부, 교육청, 지역사회 및 시민단체의 역할을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교육부가 기본적으로 큰 틀을 제시한 후에 예산 지원과 교육과정 속에 포함을 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이었다. 그리고 교육부의 정책을 실행하는 교육청 차원에서 지역과 교육현장의 상황을 고려한 방법적 측면의 지원을 수행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마지

막으로 시민단체는 교육 자료와 프로그램, 교육경험들을 교유기관과 공유함으로써 세계시민교육 연계 지속가능발전교육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하였다. 또한 교사들이 수업 지도안이나 실제 사례들을 공유하며 학교 중심으로 서로 교육과정을 협의하며 세계시민교육과 연계한 지속가능발전 교육의 실제적 배움이 일어나는 것이 학교의 역할임을 강조하였다.

전문가들은 세계시민교육 연계 지속가능발전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제시하면서도 교육을 실행하는 주체인 교사와 학교 관리자, 교육청 직원 등 관련 구성원들의 인식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공통된 의견을 보였다.

세계시민교육과 연계한 지속가능발전교육은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고, 살아가고, 물려줄 수 있는 지식, 기능, 가치, 태도를 배우는 교육이다. 이러한 실천 중심의 교육은 학령기, 교육기관에 한정되지 않고 생애 전 과정에서 끊임없이 배우고, 성찰하며, 실천하며 더욱 발전적인 미래 사회를 이루는 기반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따라서 세계시민교육과 연계한 지속가능발전교육의 활성화의 문제는 교육기관과 교육대상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적인 존속과 발전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미래 사회를 살아가게 될 학령기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세계시민교육과 연계한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실시하는 것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세계시민교육과 지속가능발전교육을 기반으로 한 미래 시민으로서 가져야 할 가치와 태도의 습관화는 지속가능한 미래사회와 미래 세계시민으로서의 역량을 기르는 중요한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세계시민교육과 연계한 지속가능발전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원방안을 실행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영순, 오영훈, 정소민, 오세경, 조영철, 최희(2016a). 「세계시민교육과 연계한 지속가능발전교육 중장기 정책연구」 최종보고서.
- 김영순, 윤희희, 오영섭(2016b). 지속가능발전교육 기반 농촌 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례 분석, 한국 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27(S), 635-650.
- 김영순, 정소민, 윤희희(2016c). 세계시민교육과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연계 방식에 관한 탐색적 논의, 중등교육연구, 64(3), 521-546.
- 박민정(2012). 교육과정 실행경험에 대한 초등교사들의 내러티브 분석, 교육과정연구, 30(3), 247-270.
- 변연지(2010). 2007 개정 초등 사회과 교육과정에 나타난 세계시민성교육 내용 분석.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변중헌(2001). 세계시민교육의 방향과 과제. 아시아교육연구, 2(2), 65-85.
- 성열관(2010). 세계시민교육의 보편적 핵심요소와 한국적 특수성에 대한 고찰, 한국교육 37(2), 109-130.
- 오세경, 오영훈, 최희(2016). 세계시민교육과 연계한 지속가능발전교육에 대한 초·중등학교 교사의 인식, 인문사회 21, 7(5), 81-101.
- 이동수, 김영순, 윤희희(2017). 중학교 사회 교과서 탐구활동의 지속가능발전교육 내용 분석, 중등교육연구, 65(1), 91-113.
- 이선경, 강선규(2009). 유네스코 지속가능발전교육 세계회의의 성과와 국내과제. 한국환경교육학회 발표 논문집. 42-9.
- 지은림, 선광식(2007). 세계시민의식 구성요인 탐색 및 관련변인 분석. 시민교육연구. 39(4), 115-134.
- 채보미(2015). 초등 사회과에서의 지속가능발전교육 프로그램이 세계시민의식에 미치는 영향. 서울교육대학교 교육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허준, 윤창국(2015). 지속가능발전교육(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ESD) 담론의 평생교육적 함의. 평생교육학연구, 21(2), 23-44.
- Misiaszek, G. W. (2015). Ecopedagogy and Citizenship in the Age of Globalisation: connections between environmental and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to save the planet. *European Journal of Education*, 50(3), 280-292.
- UNESCO(2014). Shaping the Future We Want: UN Decade of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2005-2014), Final Report. <http://unesdoc.unesco.org/images/0023/002301/230171e.pdf>.

Abstract

A Study on the support methods of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n connection with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Kim, Youngsoon · Yoon, Hyunhee(Inha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supportive measures for revitalizing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linked to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and to discuss the practical ways of activation in educational field. The researchers interviewed nine experts on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and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for the project. It also collected opinions on how to promote sustainable development education linked to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As a result of the research, experts have presented three tasks as a support measure for promoting sustainable development programs associated with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It was to provide classroom support, enhance teacher skills, and establish a network of related institutions. To improve the quality of the classes, practical operational materials are required, such as textbooks, supplementary materials, and the development of class models and programs. In addition, systematic and continuous training is required to enhance the capabilities of teachers. Lastly, it is necessary to share roles of education-related organizations, such as the Education Ministry, education office, civic groups, local governments and schools, and to establish a network system. Based on the above research results, the Commission discussed future tasks required to support the promotion of sustainable development programs related to international citizens' education.

[Keywords]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Support methods

к с і